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6



▶ 37회 예고
특사단장 라다굽따는 아쇼까에게 왕자를 교육시키는 불교 사문을 원한다. 아쇼까는 산치동산 절에 있는 담마팔 사문을 추천한다. 담마팔 사문은 아쇼까에게 한때 궁중제관이었던 깃짜나 사문과 아반띠국의 짠다빳조따왕 이야기를 한다.

특사 라다굽따, 아반띠국 웃자인에 오다

빠딸리뿌뜨라에서 특사 일행이 왔다. 아쇼까는 호위대장을 베디샤까지 보내 정중하게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빈두사라왕이 보낸 특사 단장은 제관 라다굽따였다. 라다굽따는 한때 아쇼까의 스승이기도 했으므로 특사 단장은 그만큼 환대를 더 받았다. 호위대장은 라다굽따를 왕에 준하는 호위로 절도 있게 예우했다. 라다굽따는 호위대장에게 환대를 받아서인지 대단히 만족한 얼굴로 웃자인 동문을 통해 들어왔다. 아쇼까는 궁중 접견실에서 특사 일행을 만났다. 라다굽따가 말했다.

"부왕님이시여, 대왕님의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환대해 주시니 감개무량합니다."

"그대는 한때 나의 스승이었소. 오랜만에 만나니 더욱 반갑소."

라다굽따는 일행을 소개했다. 그러자 아쇼까도 자신의 신하들을 소개했다. 접견실 의자에 착석한 뒤부터는 주로 아쇼까가 말을 많이 했다.

"대왕님의 건강은 어떻소?"

"예전 같지는 않지만 정사를 보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대왕님께서 아반띠국을 한 번 오시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대왕님께서 잊어버려도 좋을 만큼 평화롭습니다."

"부왕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란과 소요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행이 베디샤에 도착했을 때 부왕님이 옆에 계신 듯했습니다."

아쇼까는 라다굽따의 솔직한 말에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빈두사라왕의 건강이 예전과 다르다는 전언에는 신경이 쓰였다. 아쇼까는 앞으로도 빈두사라왕에게 자신이 능력을 더 많이 보여주어 인정받고 싶었다. 빈두사라왕이 아직도 정벌하지 못한 나라가 남쪽의 잠부디빠(인도)에는 많았다. 안드라국, 꽁까나국, 드라비다국, 말라꾸따국 등이었다. 잠부디빠 남쪽 바다 건너에 있는 땅바빤니국(스리랑카)도 명령만 내리면 복속시킬 자신이 있었다.

특사 일행은 궁중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회랑을 지나면서 라다굽따가 편지 두 통을 아쇼까에게 예를 갖추어 전했다.

"사신이어서 접견실에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편지입니까?"

"다르마 왕비님, 아상디밋따 부인님의 편지입니다."

"몇 달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인 모양이오."

연회장에는 이미 궁중악대와 무희가 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식탁마다 궁중요리와 과일이 한가득 놓여 특사 일행을 맞이했다. 궁중악대가 시따르보다 단순한 현악기와 반수리, 작은 북을 연주하자 흥겨운 분위기가 고조됐다. 라다굽따는 긴 이동 중에 쌓였던 여독을 풀었다.

아쇼까는 두 통의 편지가 궁금해 참지 못하고 연회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2층 침실로 올라온 아쇼까는 바로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검푸른 시프라강이 보였다. 강에서는 고기잡이하는 어선들의 불빛이 명멸했다. 깜박거리는 불빛은 아쇼까를 빠딸리뿌뜨라로 인도했다. 아쇼까는 어머니 다르마 왕비의 편지부터 꺼내 읽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갑자기 흐르는 눈물이 너의 편지를 적시었단다.

너는 어디를 가든 대왕님을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대왕님은 웃자인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흐뭇해하신다.

나는 친절한 아상디밋따가 항상 내 옆에 있어 잘 있단다.

눈이 호수 같은 손자 꾸날라도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빠딸리뿌뜨라는 조용하고 평화로우니 걱정하지 말거라.

네가 태어나고 자랐던 왕궁은 변함없이 웅장하고

강가강은 마우리아국 백성들의 어머니처럼 자애롭단다.

오늘은 너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한다.

너의 남동생이 아무 탈 없이 태어났단다.

외모는 나를, 성격은 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

아상디밋따가 정성스럽게 산후조리를 해주니 행복하구나.

동생의 이름은 대왕님과 상의해서 비가따쇼까라고 지었다.

네가 웃자인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났을 때 나는 너무도 슬펐는데,

동생이 태어나니 비로소 그 슬픔이 연기처럼 사라졌기 때문이다.

언젠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온다면 동생을 사랑하기 바란다.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니?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너와 동생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내 말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겠다.

아무리 웃자인이 네 마음에 들더라도 객지이니 외로울 것이다.

외로울 때마다 브라흐마 신들에게 의지하거라.

덕이 높은 수행자를 공경하고 가까이 하거라.

나는 네가 땅 설고 물 선 그곳에서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오는 날까지 나 역시 신들께 기도 올리마. 다르마 씀.〉



아쇼까는 동생 비가따쇼까가 생겼다는 소식에 다소 흥분했다. 다른 왕자들은 두 세 명의 동생들이 있는데도 자신만 외톨이였던 것이다. 그러니 왕실의 무슨 행사에 참가하든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은근히 부러워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아쇼까는 어머니 다르마가 보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 본 뒤에야 아상디밋따의 편지를 보았다.

〈사랑하는 남편이시여.

먼 나라 아반띠국에서 잘 계신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대왕님과 다르마 왕비님의 자상하신 배려로 잘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꾸날라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여기고 있답니다.

대왕님은 머리카락이 갈매기처럼 흰빛으로 변하고 얼굴의 주름살이 몰라보게 늘고 목소리도 예전보다 작아져, 다르마 왕비님과 저는 대왕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답니다.

당신은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저는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오히려 저는 당신의 소원을 이뤄주지 못해 죄송할 뿐이지요.

저는 당신이 원하는 자식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네샤신에게 빌어도 그런 행운은 저를 멀리할 것 같아요.

이제는 당신께서 다른 부인을 만나 당신의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이 당신과 나를 위하는 현명함이 아닐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당신의 편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저의 운명은 당신의 아들 꾸날라를 잘 키우라는 신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시여. 저의 진심이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마음 하나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아상디밋따 씀.〉

아쇼까의 얼굴은 금세 어두워졌다. 동생 비가따쇼까가 생겼다는 소식에 자축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들떴지만 아상디밋따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소식에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친절하고 자애로운 아상디밋따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했는데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쇼까는 하인을 시켜 호위대장을 불렀다. 1층 집무실에 있던 호위대장이 즉시 올라왔다.

"특사 일행을 위한 연회는 끝났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연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군마를 준비하시오."

"연회 중인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변으로 나가 바람을 쐬고 싶소."

"알겠습니다. 소장과 호위병이 경계를 서겠습니다."

아쇼까는 호위병을 앞세우고 시프라강으로 나갔다. 빠딸리뿌뜨라에서 함께 온 선봉대장이 뒤쫓아 왔다. 궁중연회에 참석했던 선봉대장이 오자, 호위대장은 스스로 십여 걸음 물러섰다. 아쇼까는 강변까지 가서 군마를 멈추었다. 강물이 가까이서 철썩거렸다. 선봉대장이 보고했다.

"방금 연회가 끝났습니다. 특사 일행은 모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생을 낳으셨소. 동생 이름은 비가따쇼까라고 하오."

"부왕님이시여, 얼마나 기쁘십니까?"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다렸으면 마음속의 슬픔이 다 사라졌다고 했겠소? 그래서 동생 이름을 비가따쇼까라고 지었다고 하오.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 동생을 보고 싶소."

강바람이 문득 불어왔다. 아쇼까가 입고 있는 도티와 머리카락이 날렸다. 강 건너 어두운 숲에서 새들이 짧고 날카롭게 울었다. 선봉대장은 아쇼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보는 심복이었다. 아쇼까가 군마를 타고 강변으로 나온 것은 마음이 심란하다는 증거였다. 선봉대장이 말했다.

"부왕이시여,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나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행복과 불행은 의좋은 자매처럼 늘 함께 다닌다고 했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소."

선봉대장은 더 묻지 않았다. 동생을 본 것이 행복이라면 무언가 불행한 일이 있음이 분명했다. 한동안 검푸른 강물을 응시하던 아쇼까가 말했다.

"아상디밋따를 닮은 아이를 원했는데 무망한 것 같소. 아상디밋따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오."

"부왕이시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나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소. 신이 외면하니 나로서도 어쩔 수 없소."

아쇼까는 병사한 첫째 부인 빠드마바띠가 낳은 꾸날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상디밋따에게 기대했던 것인데 신의 가호가 따르지 않았다. 아쇼까의 마음을 간파한 선봉대장이 말했다.

"자식은 울타리입니다. 부왕님께서도 대왕님처럼 자식이 많아야 합니다."

"아상디밋따는 내게 허락했소. 자식을 원한다면 부인을 또 얻어도 좋다고."

"그렇다면 부왕이시여, 베디샤데비를 부인으로 맞아들이십시오. 데비는 부왕님께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큰 행운이라니 무슨 말이오?"

"베디샤데바는 상인수장입니다. 상인수장의 딸 데비를 부인으로 삼으신다면 아반띠국의 모든 상인들이 부왕님께 더욱 충성할 것입니다. 데바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웃자인 성민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수장입니다."

선봉대장은 데비를 부인으로 삼는다면 아반띠국 상인들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의 말에 즉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일리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했다.〈계속〉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天地大學經

눈밝은 자는 보고, 귀 열린 자는 듣고 인연자는 찾을 것이어라! 혼란과 병란 그리고 비리와 겁액으로 벼랑 끝에 몰린 혼돈 세상을 구현하는 21세기 신세계 메시지 「미륵님의 말씀,진리」를 신인류, 새시대의 구도자들에게 「천지대학경」을 밝히는 바이다. 정진하시옵사 대각 성도 하시옵길 비옵나이다.

- 金山 드림



성의금(671쪽) : **50,000원**

● 농협 : **209-02-679386** 김남식 ● 전화 : **010-2762-8235** 道政院